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웰다잉’ 삶의 새 코드로 부상...생사일여 정신 부합 봉은사·대원사·능인선원 등 죽음체험·강좌 인기

생사일여(生死一如).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예부터 불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단순명쾌한 정신이 웰빙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웰빙(well-being),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가 바로 현대판 ‘생사일여’다. 웰빙(well-being)이 ‘잘살이’를 뜻하는 말이라면 웰다잉은 어떻게 잘살까에 머물러 편안한 삶에 집착하던 수준을 훌쩍 넘어, 삶을 진솔하고 슬기롭게 꾸리고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웰다잉 운동이 호응을 얻은 지 오래이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종 때까지 간호와 호스피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미국과 대만, 일본은 적법한 구정에 따라 호스피스 시설에 임종실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월 국립암센터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웰다잉 준비시대에 들어섰다. 운영호 국립암센터 연구과장은 “우리나라는 1년에 15만 명이 간경화와 암 등의 중병을 앓는다”며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통한 죽음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산출하고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돕는 데스 코디네이터(death coordinator), 데스 컨설턴트(death consultant) 등 신종직업도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약 27억의 장례비용을 쓰고 있지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웰다잉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불교계에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능인선원과 대원사, 관음사 등은 이미 몇 해



삼화·박구원

전부터 불교적 윤회·생사관과 웰다잉을 접목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능인선원은 죽음준비교육 수련회 ‘빛으로 태어나기’를 7월 중순 경 1박2일로 진행한다. 보성대원사도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특별수련회를 매달 셋째 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수련회는 유언장 작성과 관에 들어가는 임종체험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대구 관음사는 영남대학교 5층에 내생체험관을 마련해 놓고 극락과 지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대원사 특별수련회에 참가했던 정희연 씨는 “저생체험실에 들어가 관에 눕는 순간, 인생이 무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떠올리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계 웰다잉 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각 사찰이 진행하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체험’과 ‘유언장 작성’ 등에 집중되고, 일회적·이벤트적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타종교 호스피스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불교계 웰다잉에 대한 강좌와 체험프로그램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개별사찰의 수련회 성격에서 벗어나,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방법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8월 29일 10주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회향 웰다잉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봉은사 교육국장 선인 스님은 강좌 개설 이유를 “자아정찰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 모집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되고 대기자만 100명이 넘는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인 ‘사(死)는 기쁨’을 운영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에 시

적도 있다. ‘임종체험’과 ‘유언장 작성’ 등에 집중되고, 일회적·이벤트적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타종교 호스피스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불교적 웰다잉에 대한 강좌와 체험프로그램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개별사찰의 수련회 성격에서 벗어나,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방법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8월 29일 10주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회향 웰다잉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봉은사 교육국장 선인 스님은 강좌 개설 이유를 “자아정찰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 모집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되고 대기자만 100명이 넘는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인 ‘사(死)는 기쁨’을 운영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에 시

적해 올해 11월까지 이어지는 ‘사는 기쁨’은, 인생회고, 임종의식, 호스피스, 생명나눔서약, 상장례 봉사, 사(死)축제 등을 통해 불교적 죽음에 대해 체험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단편적인 임종체험은 자칫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을 불러일으키거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사는 기쁨” 프로그램의 핵심은 죽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교적 웰다잉의 핵심이자 최상의 죽음 준비는 바로 ‘적선(積善)’이라고 입을 모으며, 지난해 열반한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불교적 웰다잉의 표본이라고 꼽았다.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시신을 기증한 후 화장(火葬)할 것을 유언했던 모습이 불교적 웰다잉의 귀감이라는 것.

최근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웰다잉 열풍을 불교계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학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된 다각적인 활동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생사학연구소장 오진탁 교수는 “기독교적 죽음관에 입각한 호스피스 교육이나 임종체험이 아닌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방법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불교계 의료시설에서 임종실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유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참가문의 = 봉은사 (02)3218-4822-4, 대원사(061)852-1755, 대구 관음사(053)474-8228, 능인선원(02)577-5800, 서울 노인복지센터(02)739-9501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잠잠이 불교공부 “기대되네”

조계종 포교원 8월에 사이버불교대학 개설

조계종 포교원이 사찰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신도계층을 위해 ‘사이버불교대학’을 개설한다.

올 8월 정식 오픈할 사이버불교대학은 총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올해 구축되는 1단계 사업은 ‘신도기독교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조계종 신도기독교교육 교재인 <불교입문>을 웹상으로 유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총 24강으로 구성된 <불교입문>은 한 강좌 당 30분 강의로 제공된다. 교수진은 군포 정각사 화엄불교대학 학장 정영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를 비롯해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신도기독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종단 신도등록도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중

종단에서 인정하는 수련회를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또 종단에서 인가 받은 신도전문기관(불교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도전문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보다 과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강사를 구성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포교사 고시 및 직장직능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의 주요 뼈대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증대학인 ‘정규사이버대학’ 설립이다. 이 기간에 전국의 신도교육기관과 네트워크화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일 효란 스님(오봉사 조실)



시방세계 9일 해인사행자들의 하루



도반의 향기 17일 선시 영역하는 헤이트씨

지혜경명자의 조건? 10일 장미철 건강관리 27일



장마 시작...안전점검 '필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다. 산사태나 축대붕괴 등 사찰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분 6월 15일 새벽 2시 국립마산양사 관해사 요사체에 지름 1.5m 높이 30m의 노송이 쓰러져 슬레이트 지붕과 창문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요사체에서는 주지 자운 스님 등 5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산=영민 서부경남 지사장

이번에도 그들의 잔치?

제3기 방송위원회 구성 눈앞...교계 추천인사 '논의'

한 달 이상 표류했던 3기 방송위원회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기 방송위원회 추천과 관련한 6월 임시국회가 6월 19~30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5월 9일 임기가 끝난 2기가 3기 구성 때까지 임시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권한과 KBS 이사를 추천할 권한, EBS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 및 주요 방송 정책 총괄, 방송사 재허가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 인사들은 소외돼 왔다. 1기·2기 방송위원회에는 불자들이 거의 없었다. 지난 4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기독교방송(CBS) 등이 참여하는 ‘가칭(주)경인TV컨소시엄(대표 신현덕)’이 결정된 배경에는 불자 방송위원들이 부족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는 것이 불교계의 의견이다.

그 때문에 종교 편향적 방송정책 등이 생기기 않도록 3기 방송위원회에는 불자들이 좀더 포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불자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기 방송위원장에는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진대제 前 정통부 장관 등이 불망에 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추천하는 방송위원회 후보군은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김동기 변호사,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추천인사로는 강동순 KBS 감사, 김우용 한국외대 교수, 송석형 한국방송기자협회장 등이 불망에 올라 있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인류화합 세계평화 3방안 제시

Three plans of suggestions for world harmony & world peace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천 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심 못합니다. 더구나 테러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협을 방지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나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이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해결을 양측이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을 믿는 것은 시대 착오이요, 인류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미국 등 몇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지려 하므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UN 기구의 관리하에 두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용으로만 함께 사용하면 인류평화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이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순회계몽 및 강연

- 연설제목 : 기독교의 신이 없음을 증명함

▶ 상기 강연과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응해 드립니다.

又, 日本 の方た も要請があれば其處に趣いて極樂世界とキリスト教の天國世界という題で設法して上げます.

● 宇宙의 新 淨土法文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비교설법

2006. 6. 일

世界平和 淨土會 法天 鶴山 合掌

011-9230-2192(晝間 夜 8時半後 電話不可)

의견광고